

인간 중심에서 자연 중심으로

-인간의 작은 움직임도 오염이다-

진정식

목원대학교

새가 날고 싶은 곳으로 나는 것처럼 사회적 제도나 규범, 예술적 범례(paradigm)를 넘어 예술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 자신이 자아도취라도 된 작품을 하고 싶다. 물론 예술 사회의 인정도 받고 자연생태계의 무공해적 균형과 조화된 것이라면 더욱 이상적이겠다.

인간중심적 세계관은 환경파괴의 기초사상이다. 나 중심일 때 사회가 파괴되고 인간이란 동물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의 중심이라고 생각할 때 자연생태계는 파괴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연 중심적 사고방식을 기초로 자연적인 재료와 방법으로 무공해적 작품을 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자 내 작품의 주제이다.

작품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시대정신, 정체성(Identity), 이데올로기를 중시한다는 생각은 역시 인간 안에서의 문제이지 자연과 인간과의 문제는 아니다. 오늘날 생태계의 파괴는 관념이 아니라 사실상 인간을 비롯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다. 생태계의 원리를 지키고 그 원리에 맞추어 삶을 꾸려갈 때에만 인류의 미래는 있다.

서양의 중심 사상은 인본주의 및 합리주의를 근거로 한다. 이러한 생각들은 산업사회를 통해서 인간이 생존을 위해 도구를 사용하는 차원이 아닌 오히려 인간보다 도구가 중심이 되는 기술도구주의를 낳았다.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 원리의 목적은 이윤추구이다. 이러한 자본주의는 산업사회를 양성하고 전문화, 분업화되므로 우리 생활은 단순 반복, 기계적 생활 패턴을 띄게 된다. 선형적 산업구조에 쩌들어 있는 삶의 구조를

순환 구조로 바꿔 자연성을 회복해야 한다. 원시시대의 수렵, 채취 생활이나 농경시대의 생활은 한 개인이나 소집단이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해야 했던 다양한 활동을 필요로 했다. 산업사회의 분업화된 단순, 전문적인 생활이 행복한가, 아니면 원시시대나 농경시대의 종합적인 생활 방법이 행복한가?

옛날이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 때로 돌아가려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다.

시간은 돌아가지도, 돌아오지도 않는다. 돌아오는 것은 결과뿐이다. 산업사회의 전문적인 일은 인간의 신경을 날카롭게 하여 정신, 신경 질환을 야기한다. 또한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간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할지도 모르게 하고 근시안적 이윤추구에만 매달리게 한다.

이러한 사회구조는 총체적인 인식을 할 수 없게 만들며 인간 사회의 안에만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므로 도시 속에서는 자연의 존재조차도 의식하기 힘들게 한다.

인간이란 동물은 수많은 동물 중의 하나이다. 다른 동물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지도 않은, 다른 동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동·식물을 비롯하여 주변 환경과도 조화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우리 인간은 인본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스 시대에는 인본주의를 행복의 전달자로 믿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 중심적 사고는 인간과 인간 이외의 동물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환경까지도 무차별 파괴하는 독선적 황포를 일삼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각종 문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적인 태도의 산물이 아닌가?

이제 자연의 보복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인간은 일차적으로 자연 중심적 사고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 중심적 사고가 산업 사회를 이루어 지구 생태계 파괴에 앞장서왔다면 이제는 자연 중심적 사고를 통하여 그 동안 파괴된 자연을 회복해야 할 때이다. 자연을 잘 추슬러야 한다. 인간이 겸손함으로 병든 자연의 치유에 나설 때 자연은 무한한 포용력으로 인간을 다시 품을 것이다.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자연 중심적 사고로의 전환을 꾀한 것이 이번 나의 작품의 의도이다. 그러나 작품에 쓰인 재료나 방법들은 극히 비자연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승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새로운 것이라든지 지각된 허상적(虛想的)이미지로 존재를 확인한다든지 목적과 기대가 포착된 이미지(정보놀이)가 된다든지 하는 오늘날의 시대정신에서 벗어나 표현하고자 했던 나의 의도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다.

인간 상호 관계가 경제적인 경쟁관계로만 인식되어지는 현실에서 어떻게 자연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작품의 형식과 내용, 재료, 방법을 자연스럽게 무공해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움직이는 인간의 미세한 작은 움직임조차도 공해와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이 나의 한계요, 갈등이다.